

본당 소식

2024년 4월 생활말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사도 4.33).”

♣ 부활시기 때 전례에서 바뀌는 부분,
“신앙의 신비여”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5월 5일 성가정 미사 안내
-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 첫 주일을 성가정 미사로 봉헌합니다.
- 주일학교에서 전례를 담당합니다(독서, 성가).
- 미사 후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가 있겠습니다.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구역 모임 및 회의
- 성모회의: 오늘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성서 모임: 4월 28일 미사 후, 사제관
- 3구역 야외 구역 모임: 4월 27일(토)오전, 장소: Santuario di Oropa

♣ 봉사자
• 계단,화장실: 김성진 다니엘

전례 성가

입당 : 55(착하신 목자)

봉헌 : 512(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 175(이보다 더 큰 은혜와), 155(우리 주 예수)

파견 : 132(감사의 송가를)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26,70€ • 교무금 20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21일)	다음 주일(28일)
1독서: 김성진 다니엘	1독서: 안희관 요셉
2독서: 이소정 다니엘라	2독서: 남정희 마리아
복 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강윤이 스텔라	복 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변가인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4월 21일 (백)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1독서 (사도행전 .4,8-12)

그 무렵 8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9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10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11 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12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2독서 (요한 1서 3,1-2)

사랑하는 여러분,
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0,11-18)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1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2 삳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13 그는 삳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16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18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특히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그 뜻을 굳건히 지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 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3. 절망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찬란한 빛을 비추시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 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